

# 검·경, '복마전 재개발' 수사 고배 진다

### 광주 주택조합 간부 상당수 뒷돈 의혹 등 잇단 잡음

#### 주택조합 잇단 잡음 보니

**계림 4구역 정비업체 선정 대가 "6억 달라"…거절하자 선정 취소**  
**계림 8구역 조합간부 수뢰 입건…시공사 담합 의혹에 한때 보류도**  
**광천동 재개발 조합설립 과정 주민동의서 수백장 매수 의혹 고발**

광주시 동구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도시정비관리업체로 선정된 K사 대표(54)는 지난해 4월 주택재개발조합 간부 A(62)씨 등 2명으로부터 6억원의 뇌물을 요구받았다. 20억원 규모의 도시정비 용역을 계약하는 대가로 주택재개발조합 간부들이 용역비의 30%가 넘는 비용을 뇌물로 요구한 것이다. 업체 대표는 거절했지만 주택조합 간부들의 요구는 4차례나 계속됐다. 결국 이 업체는 선정취소됐고, 다른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재개발공사 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

은 혐의(뇌물수수)로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간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 외에도 실제 지난 2011년 재개발 사업 장호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에서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 관계자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조합이 설립된 30여곳의 사업대상지 대부분에서 비상대책위가 만들어져 조합과 비대위 간

고소·고발·집단민원 등이 잇따르고,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정황이나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시끄러운 곳은 동구 계림동 일대다. 특히 계림4구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광주지검 수사도 받고 있다. 비대위는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다며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를 고소했고, 조합 측은 비대위원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 소환 상황이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될 동구 계림8구역 주택조합 간부도 검은돈을 받은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광주동부경찰은 최근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계림8구역 조합 간부를 불구속 입건, 사건을 검찰에 송지했다. 이 밖에도 계림8구역은 시공사 담합 의혹과 고소·고발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시공사가 한때 사업추진을 보류하기도 했다. 동구 학동4구역 주택조합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합원

이 "조합 간부가 4300억원에 이르는 공사도급계약과 34억원 규모의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조합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구 광천동 재개발 비대위도 지난달 24일 주택조합이 조합설립 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수백장을 매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합 간부 등을 광주서부경찰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조합 측이 조합추진위 시절 주민들에게 현금 10만~20만원을 건넨 뒤 조합설립 주민동의서 700~1000장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주민동의서 수집 업무를 한 업체 직원이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광주지역 주택재개발·재건축 구역은 48곳에 면적만 368만㎡에 달한다"며 "조합설립 과정에서의 갈등과 마찰,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검은 뒷거래 등 잡음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악플 보복폭행' SNS 스타의 추락

### 폭행사건 별개 벌금형 수배…대전서 체포 수감

#### '삼악어' 행방은 확인안돼

페이스북에 올린 자신의 게시물(악어 사육 동영상)에 '악성 댓글'(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대전에서 직접 광주로 와서 악플을 단 청소년을 납치해 폭행(광주일보 2월29일자 7면)한 20대 남성이 교도소에 수감됐다. 악플러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수배자 신세로 전락, 경찰에 쫓기다가 붙잡힌 것이다. 광주서부경찰은 최근 광주에서 10대 청소년을 차량에 끌고 다니며 폭행해 물의를 빚은 김모(28)씨가 대전경찰청에 체포·수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상표법 위반과 사행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벌금 34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대전지방경찰청의 수배를 받고 있었다. 김씨의 실제 거주지를 어렵게 찾아낸 대전 둔산경찰은 잠복 수사한 끝에 지난 달 28일 대전 모처에서 김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악플러 폭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씨는 '삼악어'로 추정되는 악어를 사육하는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4만여명의 팔로워를 둔 SNS 스타였다. 하지만, 지난 22일 광주에 사는 고교

생 A(17)군이 자신의 게시물에 가족을 들먹이며 악성 댓글을 달자 팔로워 3명을 이끌고 대전서 광주로 내려와 A군을 1시간여 끌고 다니며 폭행했다. 폭행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는지 김씨는 당시 A군을 폭행한 모습마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A군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폭행을 주도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함께 한 일당의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 김씨를 공동폭행 혐의로 지난 28일 입건했다. 악플러 폭행사건 직후 SNS를 중심으로 온라인에서는 김씨가 키우는 악어가 국제협약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된 종(種)으로 분류된 삼악어라는 점에서 소유는 물론 사육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상당수 SNS 이용자들은 김씨가 일당을 이끌고 저지른 폭행사건 자체보다 그가 사육하는 악어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웠다. 김씨가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그가 키우던 악어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 케어(CARE)는 지난해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에 김씨가 키우는 악어의 몰수 조치를 요청했지만, 사육 장소를 알 수 없어 조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민주의 종각 3·1절 타종

3·1절 97돌을 맞아 1일 정오 광주·서울·전주 등 전국 곳곳에서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기리는 33번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광장에 설치된 민주의종각에서 열린 3·1절 타종식은 윤장현 광주시장, 조영표 광주시의회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97년 전 이 땅에 메아리쳤던 3·1운동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타종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 밀동만 남긴채 잘린 천연기념물 비자나무

### 화순경찰, 3그룹 도벌 수사

천연기념물 제483호로 지정된 화순 개천사(開天寺) 비자나무 숲에서 수령 300년 된 비자나무를 포함, 3그룹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화순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화순군 춘양면 개천사 옆 비자나무 숲에서 비자나무 3그룹이 밀동만 남겨 두고 잘린 채 사라졌다는 도벌(盜伐) 신고가 접수됐다. 사찰 대응으로부터 100m

가량 떨어진 숲에서 둘레가 4m에 이르고 수령도 300년은 족히 된 비자나무 한 그룹과 수십 년생 2그룹을 누군가 몰래 베어낸 뒤 가져갔다는 것이다. 경찰은 밀동의 상태로 미뤄 수개월 전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 사찰을 통하지 않고는 해당 장소로 통하는 도로가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화순군이 지난해 9월 1억 원을 들여 진행한 비자나무 숲 가꾸기 사업에 투입된 관계자의 소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글·사진 화순=조성수기자 css@

화순 개천사 비자나무 숲은 11만8000㎡ 면적에 수령 300년 이상의 비자나무 1000여주가 자생하고 있어 지난 2007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이 숲은 통일신라시대에 개천사가 창건된 이후 사찰 주변에 심은 비자나무가 점차 확산하면서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나무의 열매는 구충제 등 약제로 쓰이며 목재는 재질이 좋아 고가의 가구재나 바닥판 제작 등에 사용되고 있다. 개천사 주지 보원스님은 "정부가 보전 가치가 높다면 천연기념물로 지정은 했지만, 정작 훼손이나 도난을 막는 데엔 전혀 무신경하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글·사진 화순=조성수기자 css@



1일 화순 개천사 비자나무 숲에서 한 주민이 크기를 가능하려고 밀동만 남은 비자나무를 팔로 안고 있다.

## 5·18기념재단 24일까지 '대만 2·28 학살' 특별사진전

5·18기념재단은 대만 2·28사건 69돌을 기념하는 특별사진전을 오는 24일까지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연다고 1일 밝혔다. '대만 2·28 잊혀지지 않는 학살'을 주제로 한 이번 사진전에는 대만의 '2·28 사건기념회'가 소장한 사진 50여점과 당시의 영상이 공개된다. 대만 2·28 학살사건은 1947년 2월27일 당시 타이베이에서 전매국 단속원들이 밀수 담배를 팔던 한 여성 노점상을 과잉단속하는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해 대만인 1명이 사망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국민당 정부의 폭압 정책과 부정부패에 맞서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1949년 계엄령이 선포됐고 계엄이 해제된 1987년까지 2만8000여명의 희생자를 낸 대만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이다. 이번 전시는 5·18기념재단과 대만 2·28사건기념금회가 주관하고 광주시 5·18기념문화센터가 후원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배 고파 사찰 갔다가…쌀 가마니 훔쳐 달아난 노숙자



○…점심을 얻어먹기 위해 찾아간 사찰에 아무도 없자 동료 노숙인들과 나눠먹기 위해 쌀 가마니를 훔쳐 달아난 70대 노숙자가 경찰서 행. ○1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철도 혐의로 입건된 A(75)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50분께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한 사찰

에서 쌀 한 가마니(20kg)를 훔쳐 달아났다는 것. ○경찰은 "지난해 8월 출소 이후 노숙생활을 해온 A씨가 동료들과 나눠먹기 위해 쌀을 훔쳤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30분 만에 붙잡혔다"며 "경찰서에 와서도 '배가 고프다'라는 말을 먼저했다"고 설명했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 구례 지리산, 온천지구내 알프스모텔 매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현재 휴업상태,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모든업종 개발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3천만원
- 용자 - 6억 3천만원 포함
-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리모델링 후 (3억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